

# 명예 살인<sup>1</sup>

수아드 지움 | 김명식 옮김 | 김정년<sup>2</sup>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상들이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남성 우월주의와 함께 여성 비하에 대한 편견은 오랜 세월동안 인간의 삶 속에 녹아져 인식 하지도 못한 채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풍성한 수확을 빌며 오랫동안 대지의 여신(the Earth Mother)을 숭배하며 부족을 형성해 왔으나 유목 사회에 이르러서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전 농경 사회에서 요구되지 않았던 여러 다양한 종류의 역할들이 기대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용감한 전사들과 강력한 무기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의 용맹성과 힘이 우선시되는 사회적 요구를 가져오게 되었고 풍성한 대지의 여신으로부터 용맹한 남성 신상으로 숭배의 대상이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를 탄생시켰고 상대적으로 역할이 축소된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 지배되고 자유를 억압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렇듯 유목 사회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여성 비하에 대한 시각은 7세기 초, 아라비아 반도에서 태동한 이슬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목 사회를 배경으로 성장한 이슬람은 남성은 지배 계급으로 여성은 피지배 계급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남성 우월주의와 여성 비하라는 두 개념은 서로 맞물려 문화적 사회적 여러 관습을 만들어 내면서 이슬람의 종교적 관습과 경전인 꾸란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슬림 학자들은 이슬람의 여성 비하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인다. 그들의 주장은 비 무슬림들은 아랍어로 쓰인 꾸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슬람의 교리를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슬람이야말로 진

1 출판사 울림사 2007년 12월 15일 출간

2 햇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BEE KOREA 선교사

3 꾸란 4장 34절; 2장 226절; 4장 11절; 2장 282절

정한 사회정의와 평등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고 내세우는 경건인 꾸란이나 하디스 그 어디를 보아도 이러한 교리를 발견할 수 없을뿐더러 명백하게 여성을 비하하는 구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오늘날 이러한 이슬람의 여성에 대한 가르침은 이슬람법을 따르는 많은 국가들에서 오히려 법보다 더 심각하게 왜곡된 풍습과 관례로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 대중 매체들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21세기의 최첨단 정보망을 타고 들어오는 끔찍한 사건들을 듣는다.

수아드라 불리는 팔레스타인의 한 여인에 의해 쓰인 『명에 살인』을 통해서 오랜 세월 이슬람의 전통과 관습이라는, 그래서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던 틀 속에서 행해진 믿기 힘든, 아니 믿기 싫은 증언들을 수없이 보게 된다. 율긴이의 말을 빌리자면, “세계 26개 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지키고 있는 이 책의 가치는 단순히 한 여인의 고난을 통한 인간 승리의 축복에 매달려 있는 것만은 아닌듯하다. 그것은 오늘의 이 세계의 많은 모순 가운데 유독 여성차별의 문제를 다룬 어떤 사회학적 연구노작보다도 더욱 뼈저리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저자인 수아드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점령지구 웨스트 뱅크의 한 중농 가정에서 여자로 태어난다. 그녀의 고향에서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저주에 가깝다는 고백을 시작으로 저자는 자신의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일상을 적고 있지만 그것은 독자들에게 어찌면 가장 지독하고 끔찍한 죄악으로 각인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자는 책을 쓴 목적을 그녀의 저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내가) 살아난 것은 기적일 뿐이다. 이 기적은 나처럼 살아남지 못하고 단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오늘도 무참히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증언할 기회를 허락해 주었다.” (본문 17면)

책 전체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자전적 일인칭 형식을 띄고 있다. 다만 두 번째 장은 오늘의 수아드를 있게 한 장본인인 중동 지역의 여성 구호 활동가 자끄린느의 입장에서 바라본 저자의 당시 상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슬람법을 따르는 많은 무슬림 국가들은 왜곡된 풍습과 관례를 내세우며 여성 비하에 대한 공공연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책은 무슬림 사회에서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가공할 만한 내용을 가장 가까이에서 피부로 삶으로 겪어낸 한 여인의 생생한 증언이기에 더더욱 날카롭게 독자들에게 다가 온다.

제 1장에서 저자는 그녀가 태어난 웨스트 뱅크 촌락에서 일어나는 매일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써 내려간다. 이슬람 문화 속에서의 여성의 삶이 저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이유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소설이라고 믿기에도 끔찍한 증언들이 하나 가득 기록되어 있다. “마을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이러했다. 그곳에서는 남자들의 법이 지배했다. 다른 집에서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여자들은 날마다 매를 맞았다. 그들의 고통스런 비명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여자들은 매 맞는 것이 보통이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외양간의 기둥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본문 27면)

저자는 구체적이고도 세세한 일상을 오래된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어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써내려가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자가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서술하고 있다. 딸들과 엄마로 대변되는 여성들의 삶과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로 투영되는 남성들의 삶은 극명한 대립 구조를 이룬다. 저자의 어머니는 열넷의 아이를 출산한다. 하지만 저자가 기억하는 동기간은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 출산한 두 딸을 포함하여 일곱뿐이다. 나머지 일곱은 어떻게 된 것일까? 훗날 저자는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이미 4명의 딸을 낳았던 어머니는 그 이후 또 딸을 출산할 때마다 양가죽을 끌어다 갖 태어난 아이를 그 자리에서 바로 질식시켜 버린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저지되지 않고 오히려 모두에게 그 타당성을 인정받는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엿보게 한다. 그리하여 계속 태어나는 딸들은 이렇게 처치되어 결국 저자의 어머니는 열넷을 낳았지만 그 중의 반 이상은 태어나자마자 여자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어머니 손에 의해 싸늘한 시신으로 변하는 운명을 견게 된다. 어렵사리 살아남은 여자아이가 있더라도 그 아이는 매일 아버지 손에 죽을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면서 생명의 존엄성이란 단어는 아예 그 아이와 아무 상관없이 하찮은 존재로 가사 일을 책임지는 그저 하나의 톱니바퀴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산다.

이 책의 초반에 쓰인 내용들은 이제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명예살인”에 대한 충분하고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명예살인”의 타당성은 그 어떤 문화나 관습으로도 설명되기 어려운 제도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명예 살인”이란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여성들에게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하게 치루어 져야 하는 관습으로 결론지어진다.

저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여동생 “하난”이 사라진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본인도 몰랐을 뿐더러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엄청난 사건이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다지 “엄청난” 사건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만큼 저자가 살았던 그 마을에서는 그저 하나의 관습으로 범죄한 여성을 집안의 명예를 위해 의무감 차원에서 죽여 버리는, 마치 잘못된 가지 하나를 쳐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였다. 저자가 증언하고 있는 대로 그 마을에서 행해졌던 그래서 저자에 의해 파편으로나마 기억되어지는 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을 듯하다.

결국 “하난”은 자신의 친오빠에 의해 전화줄에 목이 졸려 명예살인을 당하고 만다. 그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저자는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다만 여동생이 오빠 손에 의해 죽어가던 모습을 어렵듯이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이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가장 의문이 되었던 것은 이 마을에 살고 있던 남성들의 가치관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아내와 친딸을 그토록 무섭게 때리고 혹사하고 때로는 죽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까? 그들의 이슬람 신앙에 대한 언급은 이 책에서 그리 많이 찾아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돼지”라 부르며 무서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대대로 이슬람의 전통을 지키는

무슬림들이었다. 그러나 이 책에 묘사되어 있는 것같이 모든 무슬림들이 이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똑같이 몹서리치도록 잔인하게 여성을 취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끔 책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저자가 살던 마을과 그 곳에서 조금 떨어진 도시와도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 저자가 사는 마을은 특히 더 여성에게 그토록 잔인할 수 있었을까? 그런 극한 행위가 보편적인 무슬림들의 관습이었다면 저자가 살고 있던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도시역시 그런 관습이 행해졌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결국 이 저자가 살던 마을에서 행해지던 지독한 여성 비하가 단순히 이슬람법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심한 차별을 가져 온 것일까?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저자가 살던 마을은 지금으로부터 25년전 이스라엘 점령 하에 있던 웨스트 뱅크 지역이라는 것뿐이다.

“명예 살인”은 무슬림들 사이에서 그다지 새로운 관습이 아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러한 명예 살인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과 그들의 일상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알고 있던 상황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비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책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 아쉽다. 물론 보안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약간의 정보만이라도 이 책에서 얻을 수 있었다면 더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었을 것 같다.

저자는 언니의 결혼을 통해 그 마을에서 행해지던 혼례 문화에 대해서도 서술한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여성 비하의 슬픈 현실을 더해 줄 뿐이다. 저자에 따르면 결혼이란 아버지에 의해 딸이 팔려 가는 것이고 그 때 그 값의 절반은 아버지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오로지 아들을 갖기 위해 여자를 취하고 여자는 그가 낳는 딸들과 더불어 평생 남자를 주인처럼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 저자는 결혼한 언니를 보며 “결혼이란 결국 매를 때리는 사람이 바뀌는 것”(본문76면)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저자는 “아랍 여인의 운명... 적어도 우리 마을에서는 매 맞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반항한다는 것을 꿈도 꿀 수 없다. 우리는 울고, 숨고, 매를 피하려고 거짓말도 하지만 어떻게 반항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도저히 안 된다. 우리는 아버지와 남편의 집 외에는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혼자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본문77면)고 증언한다.

이제 저자는 그녀의 17세 되던 해 일어난 일에 대해 써 내려가기 시작한다. 파예즈라는 앞 집 청년과의 사랑 그리고 임신, 그로 인해 그녀는 “찰무타”가 되어 명예 살인의 표적이 되고 만다.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과 어린 나이에 경험하는 임신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 그녀는 위로 받아야 할 가족들로부터 오히려 끔찍한 화형을 당한다. 그리고 기적처럼 구출되어 병

원으로 옮겨진다. 하지만 병원에서조차 그녀는 죽음가운데로 내팽개쳐져 짐승이하의 대접을 받는다. 왜냐면 그녀는 “찰무타”였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믿는 양심은 이 책에서 만나보기가 매우 어렵다. 임신 중 화상을 입고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저자를 대하는 간호사, 의사의 태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다시 죽이기 위해 독극물을 가져와 입에 부어 넣는 어머니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무엇이 이들을 이런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비하에 관한 내용들은 그저 그 문화의 관습이라고 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앞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 여성 비하에 대한 여러 구절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구절들이 어떻게 이토록 비참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는 의문 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오로지 꾸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무슬림들의 태도는 그다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결국 지나친 남성 우월주의와 지배의식, 그리고 인간의 죄 성이 빚어낸 가장 끔찍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종교가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제 2장에 들어서면서 수아드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낸 인도주의 구호단체 일원이었던 자끄린느의 시각에서 책이 서술되고 있다. 그녀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무슬림 여성 비하에 대한 막연한 이해들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얼마나 왜곡되고 무서운 일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자끄린느는 이장의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다. “대부분의 인도주의 단체들이 이들 피해 여성들의 사건을 문화적 차이의 문제라고 해서 외면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국법이 이러한 살인자들을 변호하고 있다. 이들 피해 여성들은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에 관련해 전개되는 것 같은 대규모 국제 구호운동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나는 가문의 명예를 위한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구출하고 돕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많은 위험이 따르는지를 이제 경험한다.” (본문184면)

가문의 명예는 무엇이며 왜 그것은 항상 여성들에 의해서만 더럽혀지는 것인가? 이 책을 읽 으면서 내내 떠오르는 질문이었지만 어디서도 시원한 답을 얻을 수는 없었다. 저자인 수아드는 서방 세계로 구출되어 다른 세상을 접할 때까지 모든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극심한 고통과 가족에 의해 화형을 당하는 끔찍한 상황에도 아무런 반항 없이, 불평 없이 순종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인간은 모든 것이 태어난 이후의 학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태어나 기적적으로 생명을 유지했던 수아드의 아들, 마루안과 함께 스위스에 도착하면서 이 책의 마지막 장이 열린다. 저자는 자신의 아들을 믿을만한 가정에 입양 시키고 홀로 서기를 시작한다. 그러다 한 청년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두 딸을 낳고 살면서 그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발걸음을 조심스레 내딛는다. 많은 강연과 간증에 이어 이제 저자는 그 모든 경험을 담아 “명예 살인”이라는 한권의 책을 출간하게 된다. 이

책을 읽어가면서 방금 흘린 것 같은, 그래서 아직도 체온이 느껴지는 붉은 선혈의 증언들을 대하면서 그것이 저자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었다면 믿을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그러나 엄연히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난 후 그냥 덮어 책장에 꽂아 놓을 수 없는 강한 무엇인가가 느껴졌다. 왜냐면 그 세상은 이 책이 덮어 짐과 동시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잘 알 수 없지만 언젠가 그런 세상에 마침표가 오는 날까지 아마도 이 책은 덮여지지 않을 것 같다. “고향땅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인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녀들이 언어 맞고 학대당합니다. 목이 졸리고 화형당하고 살해됩니다.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말입니다.”